지식경제부 보도자료	http://www.mke.go.kr
2011년 10월 1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유법민 투자유치과장(02-2110-5361), 박성우 사무관(5363), 정해진 주무관(5362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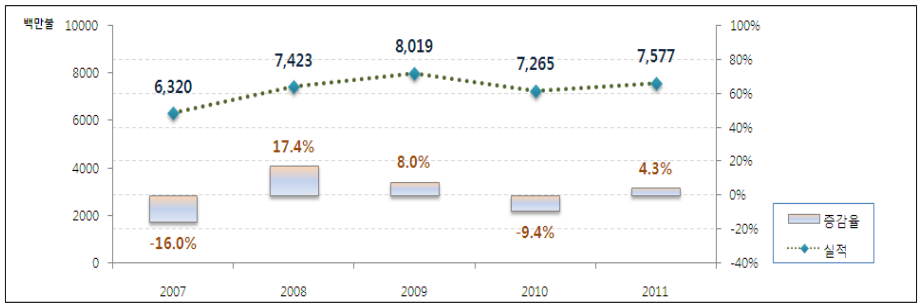
'11년 1~9월, 외국인직접투자(FDI) 동향

◇ **전년동기대비 4.3% 증가한 75.8억불로 증가세 시현**
◇ **그린필드형 투자(5.7%↑) 및 선진국 투자(45.4%↑) 증가**
◇ **미국 신용등급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對韓 투자 증가세 유지(67.6%↑)**

1. 전반적인 동향 및 특징

□ **(동향)** '11.1~9월 FDI 신고액은 **전년 동기(72.7억불)** 대비 **4.3% 증가**한 **75.8억불**, 도착금액(잠정)은 전년동기(33.9억불) 대비 **25.8% 증가**한 **42.6억불**

< 연도별 1~9월 FDI신고액 추이 >



○ **(전반적 평가) 미국·일본 신용등급 하락, 유로 재정위기 지속** 등 **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**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FDI는 전년대비 **증가세를 유지**하고 있으나 **증가율은 둔화 추세**

□ **(특징) ①美·日 등 전통투자국 ②그린필드형 ③서비스업 투자 증가**

○ **(국가별) 전통투자국 증가**(45.4%↑), 신흥투자국은 감소(42.3%↓)

- **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** 등에도 FDI의 70~80%를 차지하는 미국(67.6%↑), 일본(37.6%↑), EU(39.7%↑) 등 **전통투자국 투자 증가세 유지**

- 중국 등 신흥국의 인플레 우려, 중동의 정정불안 등으로 중국(23.3%↓), 중동지역(58.1%↓)의 투자 감소 지속

○ **(형태별) 그린필드형 투자 증가(5.7%↑)**, M&A 정체(2.7%↓)

- 신규 공장, 사업장 설립 등 **그린필드형 투자**는 소폭 증가('10.9월, 60.3억불 → '11.9월 63.8억불)하고, M&A형 투자는 소폭 감소

○ **(업종별) 서비스업** 증가세 유지**(7.4%↑)**, 제조업은 감소(10.7%↓)

- **유통·물류, 금융·보험,**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투자 증가

- 제조업의 경우 신고금액은 감소하였으나, **도착금액**은 전년동기대비 **27.1% 증가**('10.9월, 14.2억불 → '11.9월, 18.1억불)

2. 분야별 세부 내용

1 **(국가별)** 국내 투자규모가 큰 **미국·일본 등 전통투자국 중심**으로 **증가세**를 이어가고 있으나, 중국·중동 등 신흥투자국은 감소

○ **(전통투자국) 미국·일본의 신용등급하락, 유럽재정위기 지속**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**對韓 투자 증가세 유지**

- **미국**(1,297백만불, 67.6%↑)은 기계장비(1,367%↑)·**전기전자**(282%↑) 등 **제조업***분야가 **크게 증가**(266%↑)하고, 비즈니스서비스(430%↑) 등 서비스업도 소폭 증가(2%↑)

* I社(50백만불, 가전부품 제조), C社(20백만불, 발전용 밸브 제조) 등

- **일본**(,1424백만불, 37.6%↑)은 **화공**(15.8%↑)·**전기전자** (10.3%↑)·운송용기계(491%↑) 등 부품소재 중심으로 제조업* 증가(38.7%↑), **금융보험****(31%↑)·유통 등 **서비스업 분야 증가**(32.5%↑)

* E社(173백만불, 화학섬유원료 제조), D社(51백만불, 반도체용 고순도약품 제조), T社(45백만불, 축전지 제조), I社(38백만불, 비금속광물제품 제조), Y社(10백만불, 자동차엔진용부품 제조) 등

** D社(63백만불, 금융), K社(18.5백만불, 금융) 등

- **EU**(2,912백만불, 39.7%↑)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해외투자여력이 급감하여 **독일***('10.9월 43백만불 → '11.9월 1,066백만불, **2,380%↑**)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對韓 투자 감소

  * S社(208백만불, 석유정제품 제조), O社(164백만불, 비즈니스서비스), R社(10백만불,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) 등

○ **(신흥투자국) 중화권 중심**으로 **투자 증가세**(1,126백만불, 37.8%↑)**가 지속**되고 있으며, 중동 등 기타 지역의 투자는 감소세

- **중국**은 지역개발 등 **서비스업** 중심으로 투자 유입되고 있으나, 전체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에 비해 대규모 투자건*이 없어 감소(228백만불, 23.3%↓)

  * '10년 대규모 투자건 : G社(250백만불, 태양광전지 제조, '10.7월)

- 싱가폴, 말레이시아, 홍콩 등 기타 중화권은 **비즈니스서비스**, 지역개발 등 서비스업* 중심으로 대폭 증가(983백만불, 79.3%↑)

  * S社(22백만불, 싱가폴, 경영컨설팅), L社(200백만불, 홍콩, 지역개발), R社(104백만불, 싱가폴, 비주거용 건물임대업) 등

- **중동**은 해외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아 투자 감소세(70백만불, 58.1%↓), 금융·보험 분야 중심으로 투자 유입

<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>

(단위: 백만불)

연도	'09.1~9	'10.1~9	'11.1~9	증감율(%)
전통선진국	6,474	3,873	5,633	45.4 %
미국	746	774	1,297	67.6 %
일본	1,805	1,035	1,424	36.7 %
EU	3,923	2,064	2,912	39.7 %
신흥자본국	1,545	3,372	1,944	-42.3 %
중화(중국)	1,117(144)	817(330)	1,126(253)	37.8%(-23.3%)
중동	34	167	70	-58.1 %
기타	394	2,388	748	-68.7 %

2 **(업종별) 서비스업은 증가 추세 유지, 제조업**은 대규모 투자건이 적어 감소. 다만, **제조업 도착금액은 증가 추세**(전년동기比 27.1%↑)

○ **제조업(3,264백만불, 10.7%↓)**은 기계장비(141%↑), 전기전자, 화공 부문이 증가한 반면, 의약(87.4%↓), 운송용 기계 등에 대한 투자는 감소

  * T社(45백만불, 日, 축전지 제조), D社(77백만불, 네덜란드, 금속절삭가공기계 제조), E社(173백만불, 日, 화학섬유원료 제조), D社(51백만불, 日, 반도체용 고순도약품 제조) 등

○ **서비스업(3,799백만불, 7.4%↑)**은 유통*(55.1%↑), 금융·보험, 비즈니스 서비스** 등에 대한 투자 증가

  * L社(37백만불, 네덜란드, 통신판매), S社(16백만불, 네덜란드, 의약품), P社(89백만불, 네덜란드, 조리식품), Y社(30백만불, 영국, 통신장비) 등

  ** O社(164백만불, 독일, 비즈니스서비스), S社(50백만불, 스위스, 연구개발), S社(22백만불, 싱가폴, 경영컨설팅) 등

< 주요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>

(단위 : 백만불)

업 종	'09.1~9	'10.1~9	'11.1~9	증감율(%)
제조업	2,178	3,657	3,264	-10.7 %
- 전기전자	1,219	800	1,294	61.8 %
- 기계장비	159	153	375	140.9 %
- 화공	120	559	785	40.4 %
서비스업	5,800	3,536	3,799	7.4 %
- 금융·보험	1,162	811	894	10.2 %
- 도·소매(유통)	2,088	590	915	55.1 %
- 비스니스서비스	1,665	522	680	30.3 %

3 **(형태별) 그린필드형 투자**(6,377백만불, **5.7%↑**)**가 증가**하고, **M&A형 투자는 소폭 감소**(1,200백만불, **2.7%↓**)

○ 한-EU FTA 발효 등 한국의 우호적인 투자환경 및 신규 투자가 발굴 노력 등을 통해 **그린필드형 투자 증가세 지속**

○ M&A형 투자는 **지난해 추세가 지속**되고 있지만, 지난해 급감(60.8%↓)한 것에 비해 **감소폭은 둔화**

4 **(지역별)** 금융 등 서비스업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어 수도권 투자 비중 증가 추세('10.9월 36.8% → '11.9월 45.6%)

○ 지역별 **투자규모**로는 **서울(2,482백만불)**, 경기(792백만불), 충북(488백만불) 경북(372백만불) 순

3. '11년 FDI 전망 및 향후계획

□ '11년 FDI 전망

○ **(FDI 여건)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***, 미·일 신용등급 하락, EU 재정위기 지속, 중국 등 신흥국의 인플레 우려 등 **불확실성 증가**

* IMF는 '11년 **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**를 **4.3%→4.0%로 하향조정(9.20)**

- 우리경제의 성장세 유지, EU와의 FTA 발효, **엔고**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 움직임* 등 **긍정 요인도 병존**

* 일본 제조업 기업 46%, 엔고 지속될 경우 해외로 이전 계획 (日 경제산업성, 9월)

○ **(FDI 전망)**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**글로벌 FDI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**되는 상황으로

- **하반기 집중IR 전개**,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등 FDI 실적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**전년 FDI(131억불) 수준 이상 달성** 노력

□ 향후 계획

○ **우호적 對韓투자 분위기 조성** 및 **FDI 실적 제고**를 위해 **연말 집중IR 개최**

* '11.4분기 국가IR계획 : 일본(11월), 인도(11월), 중동(12월) 등

- 특히, 외국인투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**중동*, 중국**, 인도 등 신흥국**에 대한 **전략적 투자유치활동 강화**

* 중동 : UAE를 비롯하여 **사우디·쿠웨이트** 등으로 **투자유치 대상국 확대**
** 중국 : 청도, 항저우(11월), 무석·상주(12월) 등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

○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과 함께 **주요 프로젝트 점검** 및 **밀착 지원** 등을 통해 **FDI 제고노력 강화**

- 11년도 **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점검회의** 개최, 필요시 주요 투자가에 대한 **고위급 면담** 등을 통해 투자유치 실적 제고

- 국가경제 기여도가 큰 주요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**현금지원**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**국내 조기투자 유도**

붙임 : 2011년 1~9월 외국인직접투자동향